



<원왕생가>와 감통편의 '감·응(感·應)'구조

A Study on the Meaning of <Wonwangaengga> and 'Devotion-Response' Structure of 「Gamtongpyun」

저자 (Authors)	김문태
출처 (Source)	국어국문학 120 , 1997.12, 133-151 (19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20 , 1997.12, 133-151 (19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어국문학회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4393
APA Style	김문태 (1997). <원왕생가>와 감통편의 '감·응(感·應)'구조. 국어국문학, 120, 133-15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04 11:2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원왕생가〉와 감통편의 ‘감·응(感應)’ 구조 —문맥 내에서의 노래의 위상을 중심으로—

김 문 태*

1. 머리말

〈원왕생가(願往生歌)〉에 대한 논의는 이른 시기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논의의 주안점은 이 노래의 원작자가 누구냐에 있었다.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其婦乃芬皇寺之婢盖十九應身之一德嘗有歌云’이라는 이 조의 문맥중 ‘一’에서 끊어 읽을 것인가, 아니면 ‘德’에서 끊어 읽을 것인가 하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이 노래의 작자는 전자의 방법을 취한다면 광덕(廣德)이 되고¹⁾, 후자의 방법을 취한다면 광덕의 아내가 된 다²⁾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이 조는 엄장(嚴莊)중심의 설화이며, 이 노래의 내용이 엄장의 처지와 유사하므로 이 노래의 작자를 엄장으로 보

* 성균관대 강사

- 1) 김동욱, 신라 정토사상의 전개와 원왕생가, 국문학 연구 총서 1 『신라가요연구』, 정음문화사, 1985.
황패강, <원왕생가> 연구, 『삼국유사의 문예적 연구』, 새문사, 1982.
정상균, 『한국 고대 시문학사 연구』, 한신문화사, 1984.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5.
신동익, 원왕생가의 작자,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7.
성기욱, 원왕생가, 황패강 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1 『향가문학연구』, 일지사, 1993.
나경수, 『향가문학론과 작품연구』, 집문당, 1995.
- 2) 양주동,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1990.
김중우, 『향가문학연구』, 이우출판사, 1983.
정익섭, 『한국시가문학론고』, 전남대 출판부, 1989.

아야 한다는 견해³⁾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일연(一然)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수록된 대부분의 향가를 문맥내에서 '작가(作歌)'라 표현하였는데, 이 노래의 경우에는 '유가(有歌)'라 하였으므로 이 노래의 작가는 이 조목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원효⁴⁾, 불승(佛僧)⁵⁾, 왕생사상에 심취한 일반민중⁶⁾ 등이라는 견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처럼 논자들이 작자문제에 배달된 것은 작자규명 문제가 곧 <원왕생가>의 창작 의도와 의미를 밝히기 위한 선결과제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치 이 노래 규명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어 주객과 본말을 전도시키는 양상마저 띠고 있다.

또한 작자문제와 관련하여 이 노래는 이 조의 마지막 부분에 노래의 가사가 소개되고 있으므로 서사문맥과는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등장인물의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⁷⁾ 즉 이 노래는 이 조목에서 삭제한다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일연의 『삼국유사』 편찬의도를 간과한 데에서 야기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구(字句)해석에 따라 작자를 규명하는 문제보다는 이 노래가 등장인물의 문제해결에 어느정도 기여하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작금의 방법론으로는 결

-
- 3) 장진호, 원왕생가 작자고, 『대구어문논총』 5, 대구어문학회, 1987.
4) 김사엽, 원왕생가와 원효대사, 『향가의 문학적 연구』, 계명대 출판부, 1979.
5) 성기옥, 원왕생가의 생성배경 연구, 『진단학보』 51, 진단학회, 1981.
6) 작자미상이라는 견해도 이에 포함시키면 다음과 같다.
김승찬, 『한국상고문학론』, 새문사, 1987.
최 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 연세대 출판부, 1990.
박기석, <원왕생가>와 <광덕 임장>설화의 관련양상, 백영 정병욱 선생 10주기 추모논문집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1992.
7) 김열규, 향가문학의 일반적 연구,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72, pp.28-29.
성기옥, 원왕생가의 생성배경 연구, 『진단학보』 51, 진단학회, 1981, pp.218-2 20.
황폐강, 앞의 논문, p.I-87.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반도출판사, 1991, p.257.
박기석, 앞의 논문, p.102.

론이 날 수 없는, 선결적이지만 지엽적인 작자규명 문제에서 벗어나 향가연구의 본연인 서사문맥 내에서의 노래의 위상·기능 및 의미를 규명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 즉 일연의 『삼국유사』 편찬의도와 관련하여 이 노래가 수록되어 있는 감통편의 성격에 주목하면서 논의를 전개해 가기로 한다.

2. 「광덕 업장」조의 구조와 이상성취 방식

「광덕 업장」조에는 광덕과 업장이라는 왕생사상을 지닌 인물과 이를 돕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다. 우선 이 조 전체의 문맥을 서술의 순차적 전개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문무왕대에 사문(沙門) 광덕과 업장이 친하여 먼저 안양(安養)으로 가는 자는 서로 알리자고 하였다.
- (2) 광덕은 분황사 서리(西里)에 은거하며, 신을 삼으며 처와 함께 살았다.
- (3) 업장은 남악(南岳)에 암자를 짓고 농사를 지었다.
- (4) 어느날 저녁 광덕이 업장의 창가에서 서쪽으로 간다는 말을 남겼다.
- (5) 업장이 보니 구름위에서 천악(天樂)소리가 나고 광명이 땅에 뽀뽀했다.
- (6) 업장이 다음날 광덕의 거처에 찾아가니 과연 광덕이 죽었다.
- (7) 업장이 그 아내와 함께 광덕을 장사지냈다.
- (8) 업장이 광덕의 아내와 함께 살자고 하자 그 아내도 좋다고 하였다.
- (9) 밤에 업장이 통정하려 하자 그 여인이 광덕을 꾸짖었다.
- (10) 업장이 놀라며 광덕도 그랬을텐데 왜 그러냐고 반문하였다.
- (11) 광덕은 십년동안 통정을 하지 않고, 매일밤 아미타불을 외우고, 십육관(十六觀)을 지어 관(觀)이 숙달하자 명월(明月)을 타고 가부좌

- (跏趺坐)하는 정성이 있었다고 하였다.
- (12) 엄장이 부끄러워하며 완효에게 을요(津要)를 구하였다.
- (13) 원효가 정관법(淨觀法)을 지어 지도하였다.
- (14) 엄장이 몸을 깨끗이 하고 뉘우치며 일심으로 관(觀)을 닦아 서승(西昇)하였다.
- (15) 그 부인은 분황사의 종으로 십구응신(十九應身) 중의 한 분이다.
- (16) <원왕생가> 가사

(1)-(3)은 광덕과 엄장의 소개 부분이고, (4)-(7)은 광덕의 서승(西昇)부분이며, (8)-(14)는 엄장의 실수와 서승(西昇)부분이다. (15)는 여인의 신분에 대한 일연의 평이며, (16)은 노래의 가사 부분이다.

이 조목의 내용은 탐상편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南白月二聖 努躬夫得 怛怛朴朴)」조의 내용과 흡사하다. 등장인물과 그 성격의 측면에서 득도하고자 하여 수행하는 노힐부득·달달박박과 이들의 득도를 돕는 관음보살의 화신인 여인은 곧 이 조목의 광덕·엄장·여인에 부합하고 있는 것이다. '등등(騰騰)'의 의미를 지닌 노힐부득은 자신의 수행에 방해되는 것을 알면서도 끈경에 처한 여인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한 방에 기거하면서 밤새 염불하고 있어 대승적(大乘的)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노힐부득의 대승적 수행자세는 넓은 덕을 지니고 있다는 '광덕'이라는 이름에서도 풍기듯이 광덕이 미친한 분황사의 종을 아내로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십년동안 통증을 하지 않고 매일밤 염불을 하는, 개방적이면서 자신에 충실하고자 하는 수행자세와 상통한다. 이에 반해 '고절(苦節)'의 의미를 지닌 달달박박은 청정한 곳을 더럽힐까 지어하여 끈경에 처한 여인까지도 물리쳐 자신의 수행에 방해가 되는 일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있어 소승적(小乘的)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달달박박의 소승적 수행자세는 엄하고 단정하다는 '엄장'이라는 이름에서도 풍기듯이 엄장이 독신을 고수하며 고행하는, 폐쇄적이면서 자신에 충실하고자 하는 수행자세와 상통한다.⁸⁾

8) 이러한 의미에서 광덕과 달달박박을 같은 유형의 인물로, 엄장과 노힐부득을 같은 유형의 인물로 보아 광덕과 노힐부득은 폐쇄적 신앙태도를 지니고 있고, 엄장과 노힐부득은 개방적 신앙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견해(성기옥, 원왕생가의 생성배경 연구, 『진단학보』

결국 이들의 득도를 돕는 협력자인 동시에 시험을 하는 일시적 방해자로서 이 두 조목에 공히 등장하는 여인, 즉 관음보살은 달달박박과 엄장에 앞서 노힐부득과 광덕을 우선 득도케 한다. 이러한 관음보살의 선택은 엄장에 비해 광덕이 자력(自力)이 열세해 관음이 처(妻)가 되어 동수동행(同修同行)해 왕생케 한 관음의 동사섭적(同事攝的) 방법⁹⁾이라 보기 어렵다. 광덕이나 노힐부득이 엄장이나 달달박박에 비해 열세라는 것은 문맥 어디에서도 암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세일수록 ‘고절(苦節)’ 함을 고수하여 분심(分心)의 여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분심 및 파계의 직접적인 원인이자 될 수 있는 여인과 한 방에서 기거하면서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며 정진하는 것이 독신을 고수하며 고행정진하는 것 보다 더 어려운 일인 것이다. 또한 전승계층이 귀족층이나 서민층이냐에 따라 득도의 우선순위가 결정된 것¹⁰⁾이라 보기도 어렵다. 광덕설화는 경주 분황사를 중심으로 전승 정착되었기에 귀족취향의 의상형 인물이 먼저 득도하지만, 백월설화는 창원 백월산을 중심으로 전승 정착되었기에 서민취향의 원효형 인물이 먼저 득도하는 구조를 지녔다면¹¹⁾, 당시 귀족층과 서민층을 동시에 섭렵한 원효를 그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는 모호함에 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요석공주와의 만남 이전까지의 원효는 의상과 마찬가지로 귀족취향이고, 그 이후의 원효는 의상과 달리 서민취향이라 보아야 하는데, 이는 그의 몸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계층과 접촉하느냐에 따른 단선론적 파악이기 때문이다. 설사 원효를 서민 지향의 인물이라고 규정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그러한 논리에 따르자면 원효에 대한 전승 중에는 귀족취향의 전승계층에 의한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나야 하는데, 원효에 관련된 전승 그 어디에서도 원효에 대한 비방적 태도나 부정적 태도를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51, 진단학회, 1981, p.205-206. : 최철, 앞의 책, p.260-265.)는 수긍할 수 없다. 이들의 개방적·폐쇄적 성향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여인을 수용하면서도 구도(求道)에 지장을 받지 않고 정진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에 있기 때문이다.

9) 김종우, 앞의 책, p.73.

10) 성기옥, 원왕생가의 생생배경 연구, 『진단학보』 51, 진단학회, 1981, p.213.

11) 성기옥, 앞의 논문, p.213.

따라서 관음보살의 선택은 관음보살이 엄장과 달달박박이 행한 소송적 수행자세 보다는 광덕과 노힐부득이 행한 대승적 수행자세를 높이 평가한 데에서 야기된 것이라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면은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하면서 수많은 고승대덕 가운데 대승적 수행자세를 견지하면서 불교 대중화를 이룩한 원효를 유일하게 ‘성사(聖師)’라 표현한 것¹²⁾ 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렇다면 해서 관음보살이 ‘소승적 수행방법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거나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도를 보인 것은 아니다.¹³⁾ 소송적 수행자세 역시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이 방법을 고수했던 엄장과 달달박박 역시 광덕과 노힐부득에 이어 곧 득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득도를 위한 수행방법은 시대상황과 종단의 선택 및 개인의 기질에 따라 최고선이 결정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대승적 수행방법의 우위는 이 설화와 노래를 창출·전송하던 향유층의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조목의 서술구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왕생가>가 대부분의 향가와는 달리 본문에 어떠한 언급도 없이 맨 마지막 부분에 첨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논자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노래가 이 조와는 직접적인 긴밀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¹⁴⁾ 아울러 이 노래는 일연이 찬(讚) 대신에 기존의 노래를 붙여놓

12) 『삼국유사』 권사 의해오 ‘원효불기’.

이러한 수행방법의 유사함으로 인해 이들을 각기 원효와 의상의 설화적 표현으로 보고자 하는 견해(심기옥, 앞의 논문)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는 설화적인 인물인 엄장이 실존인물인 원효의 도움을 받아 득도하고 있어 전후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점, 이를 사실(史實)로 볼 경우 <원왕생가>의 배경은 문무왕대인데 『삼국사기』 「문무왕」조 16년과 21년에는 의상에 관련된 기록이 나오지만 원효에 관련된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광덕과 엄장은 문무왕대이고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경덕왕대의 인물인데 구조적 유사성 때문에 이러한 대비적 인물을 모두 원효와 의상의 설화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실존인물이 설화화한 경우 다른 이름으로 차용될 필요도 없고 실제 그러한 예도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13) 여기서 말하는 ‘관음보살의 선택’이나 ‘관음보살의 의도’라는 표현은 실제 관음보살의 섭리 그 자체라기 보다는 이 설화와 노래를 창출·전송한 향유층의 선택이나 의도라 보아 무방하다.

14) 필자 역시 예전에는 이러한 견해를 견지한 바 있다(김문태, 『삼국유사』의 시가와 서사 문맥 연구, 태학사, 1995, p.63).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잘못된 것이므로 이 글을 통해

<원왕생가>와 감통편의 '감·응' 구조

은 것¹⁵⁾ 이라고 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노래의 내용은 광덕의 수행과정의 행적과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동목표인 서승의 간절한 염원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서사문맥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 노래가 서사문맥과 관련성이 없다면 일연이 이 노래를 구태여 이조에 실었을 리 없다는 점 역시 이 노래와 서사문맥의 연관성을 살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면은 이 노래가 실려 있는 감통편 소재의 시가들이 한결같이 등장인물의 문제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입증되는 바이다.

여기서 감통 내지 감응의 의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연은 『삼국유사』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 주제 내지는 양상에 따라 9개 편목으로 나누어 수록했기에 감통편 소재의 시가와 서사문맥은 여타편목의 그것과는 달리 그들만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¹⁶⁾ 이것은 동일구조를 지닌 「광덕 입장」조는 감통편에,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조는 답상편에 수록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광덕 입장」조는 감통·감응을 주로 하고 있기에 감통편에 수록되었지만,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조는 감통·감응 뿐만 아니라 백월산 남사(白月山 南寺)의 미륵상과 미타상의 조성배경까지 밝히고 있어 「광덕 입장」조와 달리 답상편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수정한다.

15) 김승찬, 앞의 책, p.219.

박기석, 앞의 논문, pp.100-101.

감통편의 10조목 중 찬이 없는 조목은 「광덕 입장(廣德 嚴莊)」, 「용천사 혜성이 진평왕대(龍天師 曄星歌 眞平王代)」, 「정수사구빙녀(正秀師救氷女)」조이다. 「광덕 입장」조의 <원왕생가>와 「용천사 혜성이 진평왕대」조의 <혜성가>는 각기 조목 말미에 붙어있어 일견 찬을 대응하는 노래라 볼 수도 있으나, 이 편목의 「월명사 도솔가」조에서는 <도솔가>와 <제망매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연이 찬을 별도로 붙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16)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김문태 (앞의 책, pp.21-41.) 참조.

3. 감통·감응의 의미

우선 감통·감응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有感必應 萬事皆通
至德 感通於神明¹⁷⁾

감(感)이 있으면 반드시 응(應)이 있는 것이고, 이 때 만사가 통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지덕(至德)이면 신명에 감통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의 기감(機感)과 부처의 응용(應用)이 상통하여 융합하는 것을 감응도교(感應道交)라 한다.

感卽衆生 應卽佛也 謂衆生能以圓機感佛 佛卽以妙應應之 如水不上升 月不下降 而一月普現衆水¹⁸⁾

중생이 감(感)하면 부처가 응(應)하는 것인데, 이는 중생이 온전한 발동으로써 능히 부처를 감(感)하게 하면 부처는 오묘한 응답으로써 이에 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물이 위로 오를 수 없으며, 달이 밑으로 내려올 수 없으나 하나의 달이 온 물을 비추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감통 내지 감응은 중생의 신심(信心)의 정성이 신불(神佛)에 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감통면에 속해있는 「광덕 엄장」조에는 이러한 양상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이를 위해 우선 10개의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감통면에 수록된 여타조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선도성모수희불사(仙桃聖母隨喜佛事)」조는 지혜라는 비구니가 불전(佛殿)을 수리하는데 힘이 미치지 못하자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를 받들게 하고자 하는 선도성모가 나타나 금을 시주함으로써 불사(佛事)를 마

17) 諸橋徹次, 『大漢和辭典』 卷四, 感, 感通.

18) 諸橋徹次, 『大漢和辭典』 卷四, 感, 感應.

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감(感)'은 비구니의 불전수리에 대한 정성이며, '응(應)'은 원래 도교의 숭앙자였지만 후에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를 받들게 하고자 했던 선도성모의 시주와 불전수리 완료로 나타나고 있다.

「육면비엄불서승(郁面婢念佛西昇)」조는 육면이라는 종이 주인의 방해도 불구하고 고행을 하며 엄불하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이어 천악(天樂)과 함께 서승(西升)하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감'은 신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고행을 통해 엄불하는 종의 정성이며, '응'은 불당에도 오르지 못하고 마당에서 고행하며 엄불하는 종을 당(堂)에 오르게 하라는 하늘에서의 소리와 서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흥우성(憬興遇聖)」조는 경흥이라는 삼장(三藏)에 통달한 국사가 병에 들어 있을 때 십일면원통보살(十一面圓通菩薩)의 현신인 비구니가 나타나 특이한 방법으로 치유해 주었으며, 후일 경흥이 말을 타고 가다 건어(乾魚)를 지고 가던 문수보살(文殊菩薩)의 현신인 한 비구로부터 꾸지람을 받고 크게 깨우쳤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감'은 18세에 출가하여 삼장에 통달한 국사의 정성과 기마(騎馬)에 대한 참회와 정진이며, '응'은 십일면원통보살의 치유와 문수보살의 꾸짖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조에서의 전반부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감'에 이어 '응'으로 나타나지만, 후반부는 이례적으로 '응'이 '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진신수공(眞身受供)」조는 효소왕(孝昭王)이 망덕사를 세워 낙성회를 열고 공양하면서 한 초초한 비구에게 국왕의 친공(親供)을 보았다고 하지 말라 하자, 비구 역시 왕도 진신석가를 공양하였다고 말하지 말라 하고 사라져 그 곳에 두 절을 지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감'은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창사(創寺)하고 친히 재(齋)를 올린 국왕의 정성이며, '응'은 석가가 현신하여 공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명사 도술가(月明師 兜率歌)」조는景德왕(景德王)이 이일병현(二日竝現)의 변괴를 없애고자 연승(緣僧)으로서 국선지도(國仙之徒)인 월명사로 하여금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자 변괴가 사라지고 동자로 현신한 미륵이 수정염주와 차를 주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감'은 <도술가>

를 통한 산화공덕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국왕과 월명사의 정성이며, '웅'은 변괴가 사라지고 미륵보살이 현신하여 그 뜻을 기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물환생(善律還生)」조는 승려인 선물이 육백반야경을 이루고자 하다 수명이 다하여 음부(陰府)에 갔으나 명사(冥司)가 선물의 소원을 듣고 환생시켜주었는데, 나오는 길에 부모의 잘못으로 지옥에 빠진 여인의 소원을 듣고 이를 실천하자 여인의 혼이 고뇌를 벗어났으며, 이를 들은 사람들이 경탄하여 보전(寶典)을 조성하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감'은 죽어서도 육백반야경을 이루고자 하는 비구의 정성이며, '웅'은 명사(冥司)가 수명이 다했음을 알면서도 선물을 환생시켜준 것과 선물이 한 영혼의 해원(解怨)을 이룬 데 따른 사람들의 시주로 보전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현감호(金現感虎)」조는 김현이 밤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쉬지 않고 답돌이를 하고 있을 때, 범이 변신한 여인이 나타나 같이 답돌이를 하다 통정을 하고 그 여인의 집에 갔는데, 하늘에서 이들을 징벌하고자 하자 여인이 자청하여 김현에게 공을 돌리고 죽어 김현이 범을 위해 창사(創寺)하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감'은 밤늦도록 홀로 정성껏 답돌이를 한 김현의 정성이며, '웅'은 대성(大聖)이 범으로 하여금 김현에게 복을 내리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용천사 혜성가 진평왕대(融天師 彗星歌 眞平王代)」조는 거열랑(居烈郎)·보처랑(寶處郎)·보동랑(寶同郎) 등이 풍악(楓岳)에 가고자 할 때, 혜성이 심대성(心大星)을 범하여 멈추려 하자 용천사가 향가를 지어 부르자 혜성이 사라지고 일본군이 물러갔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감'은 <혜성가>를 통해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용천사의 정성이며, '웅'은 괴변이 사라지고 일본군까지도 물러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수사구병녀(正秀師救水女)」조는 승려인 정수가 길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얼어 죽으려 하는 것을 보고, 안에서 소생시키고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고 알몸으로 본사(本寺)에 돌아와 벗짚으로 몸을 덮고 밤을 지새우자 궁중의 하늘에서 정수를 국사로 봉하라는 소리가 들려 왕이 그대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감'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원왕생가>와 감통편의 '감·응' 구조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 정수사의 자비심이며, '응'은 하늘의 명으로 정수사가 국사로 책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감통편의 조목은 한결같이 '감(感)'에 따른 '응(應)'의 나타남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조목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한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문제해결 내지 이상성취의 능력여부에 개의치 않고 혼신의 노력과 정성을 다 하고 있고(感), 이들의 문제나 이상은 이들이 보여준 지극정성에 감축한 부처 내지 하늘의 도움을 통해 모두 해결되거나 성취되는 것이다(應). 이는 곧 정성을 통한 '감' 연후에 부처의 '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타력왕생(他力往生)하고자 하는 미타신앙이라 할지라도 자력(정성을 통한 '感')이 전제되어야 타력(부처의 '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광덕 입장」조에서 '지극한 정성이 이와 같았으니 비록 서방으로 가고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디로 가겠는가(竭誠若此 雖欲勿西 奚往)', 「월명사 도솔가」조에서 '(사람들이) 월명의 지극한 덕과 지극한 정성이 능히 부처께 이르러 나타남이 이와 같음을 알았다(知明之至德與至誠 能昭假于至聖也如此)', 「김현감호」조에서 '대개 부처의 응하심은 여러가지인데 (범으로 하여금 보은케 한 것은) 김현의 정성스러운 탐돌이에 감동하여 내세의 이익에 보답하고자 함이라(蓋大聖應物之多方 感現公之能致精於旋遶 欲報冥益也)'라 한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즉 감통편 소재의 조목들은 문제해결 내지 이상성취를 위한 등장인물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이 선행될 때, 부처 내지 하늘의 응하심이 있게 된다는 동일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또한 이례적으로 '응'이 '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현신한 보살이 지극한 덕과 정성을 지닌 인물의 일시적인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함으로써 참회 내지 회개를 유도하여 다시 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에 나타난다. 대부분의 감응형태는 '감 - 응'의 단일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진과 잘못) - 응(잘못 지적) - 감(참회와 정진) - 응(문제해결 내지 이상성취)'의 중첩구조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부처의 응물이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두 구조는 부처 내지 하늘의 도움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부처 내지 하늘의 '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의 지극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다. 이제 「광덕 엄장」조의 경우에는 '감'과 '응'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4. <원왕생가>의 위상과 의미

「광덕 엄장」조 전반부에서의 '감(感)'은 후에 광덕 처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광덕이 아내와 생활하면서 십년동안 통정을 하지 않고, 매일밤 아미타불을 외우고, 십육관(十六觀)을 지어 수행하는 정성이며, '응(應)'은 광덕의 서승(西升)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광덕의 신심의 정성이 부처의 응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후반부에서의 '감'은 엄장이 여인과의 욕정에 대해 참회하고 원효의 지도에 따라 수행한 것이며, '응'은 십구응신의 한 분인 여인의 꾸짖음과 서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서방정도에 가고자 정진을 하던 엄장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자 부처가 꾸짖음을 통한 '응'을 보였고, 이어 엄장이 신심의 정성으로 참회와 정진을 계속하자 부처가 서승이라는 '응'을 보이는 중첩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조는 「경홍우성」조와 마찬가지로 전반부는 '감'에 이어 '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후반부는 이례적으로 '응'이 '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왕생가>는 이 조의 등장인물의 '감'과 이에 따른 부처의 '응'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月下伊底亦
西方念丁去賜遺
無量壽佛前乃

달이 어찌서
西方까지 가시겠습니까.
無量壽佛前에

<원왕생가>와 감통편의 ‘감·응’ 구조

惱叱古音多可支白遣賜立	報告의 말씀 빠짐없이 사뢰소서.
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	誓願 깊으신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兩手集刀花乎白良	두 손 곧추 모아
願往生願往生	願往生 願往生
慕人有如白遣賜立	그리는 이 있다 사뢰소서.
阿邪此身遣也置遣	아아, 이 몸 남겨 두고
四十八大願成遣賜去	四十八大願 이루실까. ¹⁹⁾

서방정도에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사십팔대원(四十八大願)을 세운 아미타(무량수불)께 자신의 서승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전해달라는 것을 달을 매개로 하여 토로하고 있다. 이 노래에는 시적 자아의 문제 내지 이상으로서의 서승하고자 하는 염원이 절실하게 담겨 있다. 이러한 간절한 열망은 ‘아아, 이 몸 남겨 두고 四十八大願 이루실까’라는 대목에서 절정을 이룬다.

따라서 이 노래의 시적 자아는 자신의 문제해결 내지 이상성취를 위해 협박이나 위하의 태도를 취하므로 개인 서정의 성격을 지니지 않고 있다는²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노래가 서승에 대한 개인의 열망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에 이견이 없다면, 이러한 견해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일병현(二日並現)’이라는 국가가 처해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리워진 <도술가>는 집단적인 발원으로서 환기법과 강한 명령법 등 주사(呪詞)의 일반적인 징표들이 개입될 수 있는 반면²¹⁾, 서승을 위해 불리워진 이 노래는 개인적인 발원으로서 주사의 일반적인 징표들이 개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아, 이 몸 남겨 두고 四十八大願 이루실까’를 주사의 일반적인 징표로서의 강한 명령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이 자신의 개인적인 서승을 위해 매개자인 달을 위협하거나 명령하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응’의 주체자인 부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명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면은 <도술가>의 경우 매개자로서의 꽃에 명령

19)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0, pp.118-119.

20) 윤영옥, 앞의 책, pp.95-96.

21) 김문태, 앞의 책, p.129.

하는 것이지, '응'의 주체자인 미륵좌주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점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원왕생가>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제 내지 이상을 담고 있는 노래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
를 집단적 성격의 노래로 볼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를 공
유한다 해서 개인서정의 노래가 집단적 성격의 노래로 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결국 <원왕생가>는 서승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불교적
개인서정의 노래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노래의 작자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 노래의 작자가 광덕이든, 광덕의 아내든, 엄장이든, 원효든, 무명의
불승이나 왕생사상에 심취한 일반민중이든 간에 서승의 염원을 담은
이 노래를 통해 서승이라는 개인의 이상을 성취하려 하였다면, 이 노래
의 시적 자아는 이 노래를 부르는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
해 이 노래를 누가 지었는가 하는 문제와 이 노래를 누가 불렀는가 하
는 문제를 별개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노래를 자신이 직접
지어 불렀는가 여부 보다는 자신이 시적 자아와 어느정도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조에
등장하는 광덕과 광덕의 아내, 그리고 엄장은 공히 서승이라는 이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노래의 시적 자아는 이들 모두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사문맥 및 노래와의 관련이 가장 많은 광덕이 이 노래를 불렀을
경우, 이 노래는 광덕이 십육관을 지어 관(觀)이 숙달하자 명월(明月)을
타고 가부좌(加趺坐)하는 동안에 달을 매개로하여 서승하고자 하는 간
절한 심정에서 불리워졌을 것이다.²²⁾ 노래는 가장 절정의 순간에 자신
의 모든 마음을 함축적이면서도 온전히 실어낼 수 있는 요체, 다시 말
해 자신의 온 마음이 응집된 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은 서승을 원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성을 기울이다 일시적인 실수를 하였으나
곧 이를 참회하고 자신의 수행법을 익혀 결국 광덕과 마찬가지로 서승

22) 박노준(앞의 책, p.58) 역시 <원왕생가>는 자기수련을 보다 철저히 다지는 과정에서 지
어진 것으로 불과(佛果)를 얻기 위한 제 2단계 과정에서 불리워졌을 것으로 보고 있어
이에 시사하는 바 크다.

의 이상을 성취한 임장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원효로부터 전수받은 수행법을 통해 서승을 염원하는 동안 극적인 순간에 이 노래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토로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광덕의 아내 역시 광덕과 더불어 서승을 열망하는 인간이었다면 동일한 차원에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광덕의 아내는 원래 십구응신의 한 분으로 인간들의 불교적 염원을 돕기 위해 현신하였다는 일연의 평을 문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조목에서 이 노래를 부른 주체는 일차적으로는 광덕일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이차적으로는 임장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이 노래는 처음에 누가 지었든, 그리고 나중에 누가 불렀든 간에 등장인물의 이상성취에 직접적인 관련을 지니고 있다. 광덕이든 임장이든 간에 이들의 서승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감'의 극치를 드러내 보였던 것이다. 이에 부치는 이들이 보인 '감', 즉 서승에 대한 지극정성과 그 지극정성이 응축되어 표현된 이 노래에 대해 '응'하였고, 결국 광덕과 임장은 서승의 이상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²³⁾ 물론 이 조목의 문면에서 이 노래로 인해 광덕과 임장이 서승이라는 이상을 성취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감통편의 시가는 이 편 특유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왕생가>와 마찬가지로 감통편에 수록되어 있는 시가, 즉 <도술가>·<세망매가>·<혜성가>가 한결같이 그 조목에서 대두되는 문제의 해결 내지 이상의 성취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노래가 속해있는 조목에 있어서의 '감'은 오직 이들 노래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응'이 있었다는 것은 '감'에 있어서 노래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일연이 감통편 내에서 '(향가가) 능히 친지귀신을 감동시키는 것이 한 둘이 아

23) 황폐강(앞의 논문, pp.1-101-104)은 이 노래가 무량수불의 메시지에 무조건적 신뢰와 철저한 자기헌신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이라 하여, 무량수불이 발신하고 광덕이 이에 응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감' 연후에 '응'이 있다는 감통 내지 감응의 구조를 간과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니다(鄉歌· · · 能感動天地鬼神者非一)'라고 평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광덕과 같은 성숙한 정신상태에서는 더 이상 나르씨씨즘에 기미된 언어관('감동천지귀신'한다는 언어관)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에 · · · 원왕생가에는 신통력이나 노래의 힘 또는 신비적 효과가 부수되지 않고 있다'는 견해²⁴⁾는 재고되어야 한다. 이는 이 조목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상인 서승을 성취하는 전제조건으로서의 '감'에 있어 이 노래가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고려치 않은 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왕생가>가 여타의 향가와 달리 '작가운(作歌云)'이 아니라 '유가운(有歌云)'으로 명기되어 있다고 해서, 또한 여타 향가와는 달리 서사문맥 안에서 직접 언급됨이 없이 뒷부분에 소개되었다고 해서 이를 이 조의 서사문맥과는 관련이 없는 노래, 혹은 일연의 찬(讚) 대신에 첨기된 노래 정도로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원왕생가>는 이 조의 등장인물이 지닌, 공통되지만 개인적인 이상성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불교적인 개인서정의 노래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5. 맺음말

이 논문은 <원왕생가>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 있어 선결적이지만 지엽적인 작자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작금의 논의에서 벗어나, 「광덕 엄장」조의 등장인물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또한 이 노래의 시적 자아가 견지하고 있는 서승에 대한 간절한 이상이 어떠한 방식에 의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룸으로써 <원왕생가>의 위상과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광덕 엄장」조는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조와 동일한 구조

24) 정상균, 앞의 책, p.197.

<원왕생가>와 감통편의 ‘감·응’ 구조

로 이루어져 있다. 서승을 염원하는 두 대비적 인물과 이를 돕는 관음 보살의 현신인 여인이 등장하는데, 두 조목에서 공히 대승적 수행자세를 지닌 광덕과 노힐부득이 먼저 이상을 성취하고, 소승적 수행자세를 지닌 업장과 달달박박이 뒤이어 이상을 성취하게 된다. 이러한 동일구조로 되어 있는 두 조목은 각기 다른 편목에 실려있다. 이는 「광덕 업장」조가 감통·감응을 위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조는 감통·감응 뿐만 아니라 불상의 조성배경까지 밝히고 있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감통편 소재의 조목들은 한결같이 ‘감’에 따른 ‘응’의 나타남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조목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문제해결과 이상성취를 위해 자신의 능력여부에 개의치 않고 혼신의 노력과 정성을 다 하고 있고(感), 이들의 문제나 이상은 이들이 보여준 지극정성에 감촉한 부처 내지 하늘의 도움을 통해 모두 해결되거나 성취되는 것이다(應). 대부분은 ‘감 - 응’의 단일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진과 잘못) - 응(잘못 지적) - 감(참회와 정진) - 응(문제해결 내지 이상성취)’의 중첩구조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부처의 응물(應物)이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광덕 업장」조의 경우 전반부에서의 ‘감’은 광덕이 아내와 생활하면서 십년동안 통정을 하지 않고, 매일밤 아미타불을 외우고, 심육관을 지어 수행하는 정성이며, ‘응’은 광덕의 서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후반부에서의 ‘감’은 업장이 여인과의 욕정에 대해 참회하고 원효의 지도에 따라 수행한 것이며, ‘응’은 십구응신의 한 분인 여인의 꾸짖음과 서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조의 전반부는 ‘감’에 이어 ‘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후반부는 이해적으로 ‘응’이 ‘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원왕생가>는 바로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공편된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과정에서 불리운 노래이다. ‘아아, 이 몸 남겨 두고 四十八大願 이루실까’라는 대목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이 노래에는 시적 자아의 문제 내지 이상으로서의 서승하고자 하는 염원이 절절하게 담겨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노래의 작자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

노래의 작자가 광덕이든, 광덕의 아내든, 엄장이든, 원효든, 무명의 불승이나 왕생사상에 심취한 일반민중이든 간에 서승의 염원을 담은 이 노래를 통해 서승이라는 개인의 이상을 성취하려 하였다면, 이 노래의 시적 자아는 이 노래를 부르는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승의 이상을 성취하고자 하는 누구든 간에 이들의 서승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감'의 극치를 드러내 보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에 부처는 이들이 보인 '감', 즉 서승에 대한 지극정성과 그 지극정성이 응축되어 표현된 이 노래에 대해 '웅'하였고, 결국 이들은 서승의 이상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노래를 자신이 직접 지어 불렀는가의 여부 보다는 자신이 시적 자아와 어느정도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조에 등장하는 광덕과 광덕의 아내, 그리고 엄장은 공히 서승이라는 이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노래의 시적 자아는 이들 모두와 일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왕생가>가 여타의 향가와 달리 '유가운(有歌云)'으로 명기되어 있다고 해서, 또한 서사문맥안에서 직접 언급됨이 없이 뒷부분에 소개되었다고 해서 이를 이 조의 서사문맥과는 관련이 없는 노래, 혹은 일연의 찬 대신에 첨기된 노래 정도로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원왕생가>는 이 조의 등장인물이 지닌, 공통되지만 개인적인 이상성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불교적인 개인서정의 노래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욱. 신라 정토사상의 전개와 원왕생가. 국문학 연구 총서 1 『신라가요연구』. 정음문화사. 1985.
- 김문태. 『「삼국유사」의 시가와 서사문백 연구』. 태학사. 1995.
- 김사엽. 원왕생가와 원효대사. 『향가의 문학적 연구』. 계명대 출판부. 1979.
- 김승찬. 『한국상고문학론』. 새문사. 1987.
- 김열규. 향가문학의 일반적 연구.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 서강대 인문과학연구 연구소. 1972.
-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0.
- 김종우. 『향가문학연구』. 이우출판사. 1983.
- 나경수. 『향가문학론과 작품연구』. 집문당. 1995.
- 박기석. <원왕생가>와 <광덕 엄장>설화의 관련양상. 백영 정병옥선생 10주기추모논문집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1992.
-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5.
- 성기욱. 원왕생가의 생성배경 연구. 『진단학보』 51. 진단학회. 1981.
- . 원왕생가. 황패강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총 1 『향가문학연구』. 일지사. 1993.
- 신동익. 원왕생가의 작자.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7.
- 양주동.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1990.
- 윤영옥.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91.
-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반도출판사. 1991.
- 장진호. 원왕생가 작자고. 『대구어문논총』 5. 대구어문학회. 1987.
- 정상균. 『한국 고대 시문학사 연구』. 한신문화사. 1984.
- 정의섭. 『한국시가문학론고』. 전남대 출판부. 1989.
- 최 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 연세대 출판부. 1990.
- 황패강. <원왕생가> 연구. 『삼국유사의 문예적 연구』. 새문사. 1982.